

2016. 09. 19. ~ 09. 25. 주간

103
VOL

전남농업정보

기상전망

농산물 주간 동향 (관측정보)

- 사과·배 생산, 출하, 가격전망
- 풋고추·애호박 출하, 가격전망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전남 농수산물 1천만달러 미국 수출키로
- 신안군 수출 효자작물 “배” 미국 수출 시작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 배의 가공 조건 및 품종에 따른 단백질 분해 효능
- 9~10월은 겨울철 풀사료 파종적기

정책동향

- 2016년산 쌀 39만톤 매입 추진
- 농식품 수출 극대화를 위해 100일간 총력 체제 돌입

사업신청 및 홍보

- 전문농업경영인 요람, 농업마이스터대 신입생 모집



요 약

☼ 주간 기상전망 5

- ▶ 기압골의 영향으로 30일과 10월 1일에는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과 전반에는 비슷하겠고, 후반에는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음
- ▶ 강수량은 평년(1~6mm)보다 많겠음

☼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8

- ▶ 사과·배 생산, 출하, 가격전망
- ▶ 풋고추·애호박 출하, 가격전망

☼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10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 전남 시·군 농정 동향 12

- ▶ 나주시, 쌀귀리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
- ▶ 광양시, 문화행사가 있는 날, 지역특산품도 있어
- ▶ 곡성군, 건강 식재료 '히카마'를 아시나요
- ▶ 보성군, 비봉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확정
- ▶ 강진군, 귀농이 궁금하면 강진군으로 캠핑오세요
- ▶ 영광군,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가 편의제공을 위한 근무체계 개선
- ▶ 완도군, '완도 자연그대로' 대한민국 올해의 히트상품 대상 수상
- ▶ 장성군, 미래농업 돌파구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20

- ▶ 전남 농수산물 1천만달러 미국 수출키로
- ▶ 신안군 수출 효자작물 “배” 미국 수출 시작

❁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22

- ▶ 인디언시금치 가을작형에 알맞은 토양 멀칭필름 선발
- ▶ 배의 가공 조건 및 품종에 따른 단백질 분해 효능
- ▶ 흑목이 『용아』 (JNM-Mi-194)
- ▶ 토마토 『라이토』 (전남3호)
- ▶ 천연오일 이용 유자 가향 홍차 제조방법
- ▶ 메뚜기 분말을 이용한 머핀 제조 방법
- ▶ 9~10월은 겨울철 풀사료 파종적기
- ▶ 종자관리소, 2016년산 벼 우량종자 본격 수확
- ▶ 가뭄에 강한 벼 품종 개발 기반 마련
- ▶ 콩 적정 수확시기와 수확 전·후 관리방법
- ▶ 맛 좋고 수량 많은 고구마 재배 확대 위해 전문가 모인다
- ▶ 국내 육성 최고의 새 품종 배 한자리에 모인다
- ▶ 가을철 소 호흡기 질병, 미리 대비하세요

❁ 정책 동향 38

- ▶ 2016년산 쌀 39만톤 매입 추진
- ▶ 농식품 수출 극대화를 위해 100일간 총력 체제 돌입

❁ 해외 농업정보 41

- ▶ 식량작물 생산성 향상 위해 아시아 14나라 모인다
 - ▶ 일본 수입식품 검역검사 발표
 - ▶ 해외 곡물시장 동향 '2016. 09. 23. (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밀 선물 가격은 옥수수과 대두의 약세에 동조하며 전일대비 0.2% 하락 마감하였음.
 - 옥수수 :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옥수수 선물 가격은 기술적 매도와 대두의 약세 그리고 미국의 수확이 점차 진행되며 전일 대비 0.1% 하락 마감하였음.
 - 대두 :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대두 선물 가격은 현물시장의 약세로 인해 전일 대비 2.2% 하락 마감하였음.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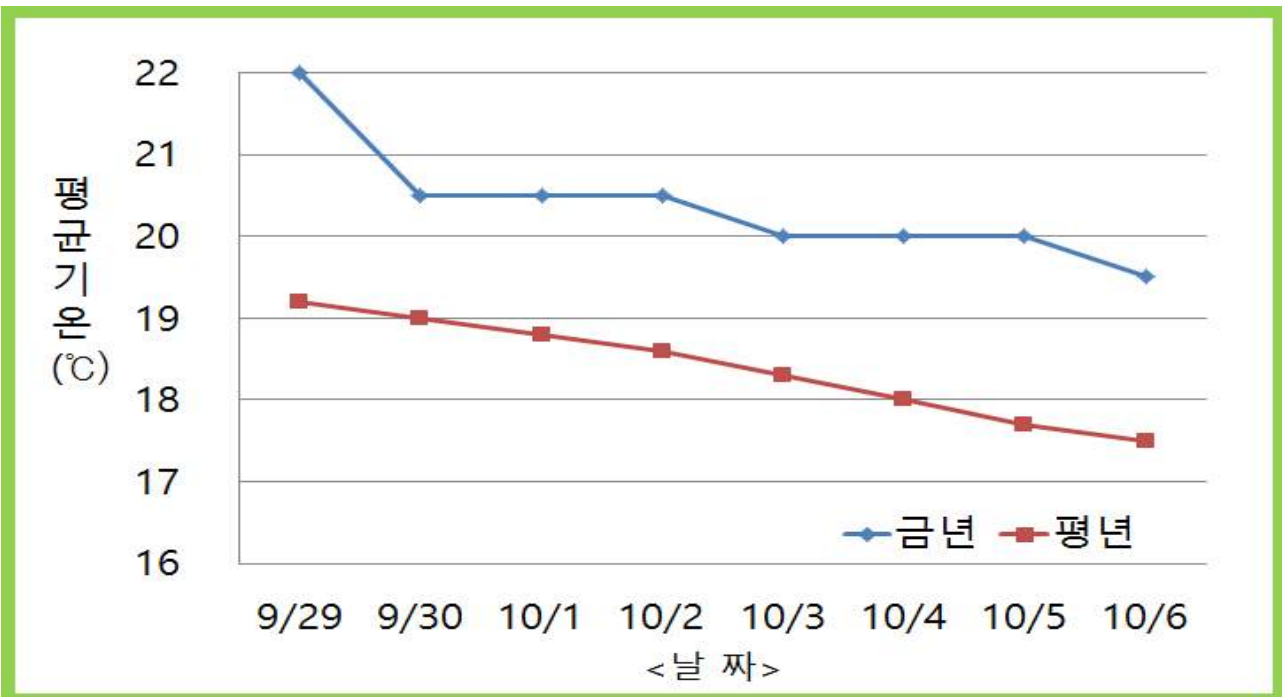
- ▶ 취업·창업 이제는 농업·농촌에서!
- ▶ 전문농업경영인 요람, 농업마이스터대 신입생 모집

1. 주간 기상전망

■ 기상청 중기예보(광주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20.4	18.4	2.0	24.8	24.2	0.6	16.0	13.8	2.2	2.5
9. 29.(목)	22.0	19.2	2.8	25.0	24.7	0.3	19.0	14.8	4.2	3.2
9. 30.(금)	20.5	19.0	1.5	24.0	24.6	-0.6	17.0	14.6	2.4	3.5
10. 01.(토)	20.5	18.8	1.7	24.0	24.6	-0.6	17.0	14.3	2.7	3.5
10. 02.(일)	20.5	18.6	1.9	25.0	24.4	0.6	16.0	14.1	1.9	2.9
10. 03.(월)	20.0	18.3	1.7	25.0	24.1	0.9	15.0	13.7	1.3	1.7
10. 04.(화)	20.0	18.0	2.0	25.0	23.9	1.1	15.0	13.3	1.7	1.8
10. 05.(수)	20.0	17.7	2.3	25.0	23.6	1.4	15.0	13.0	2.0	1.6
10. 06.(목)	19.5	17.5	2.0	25.0	23.4	1.6	14.0	12.8	1.2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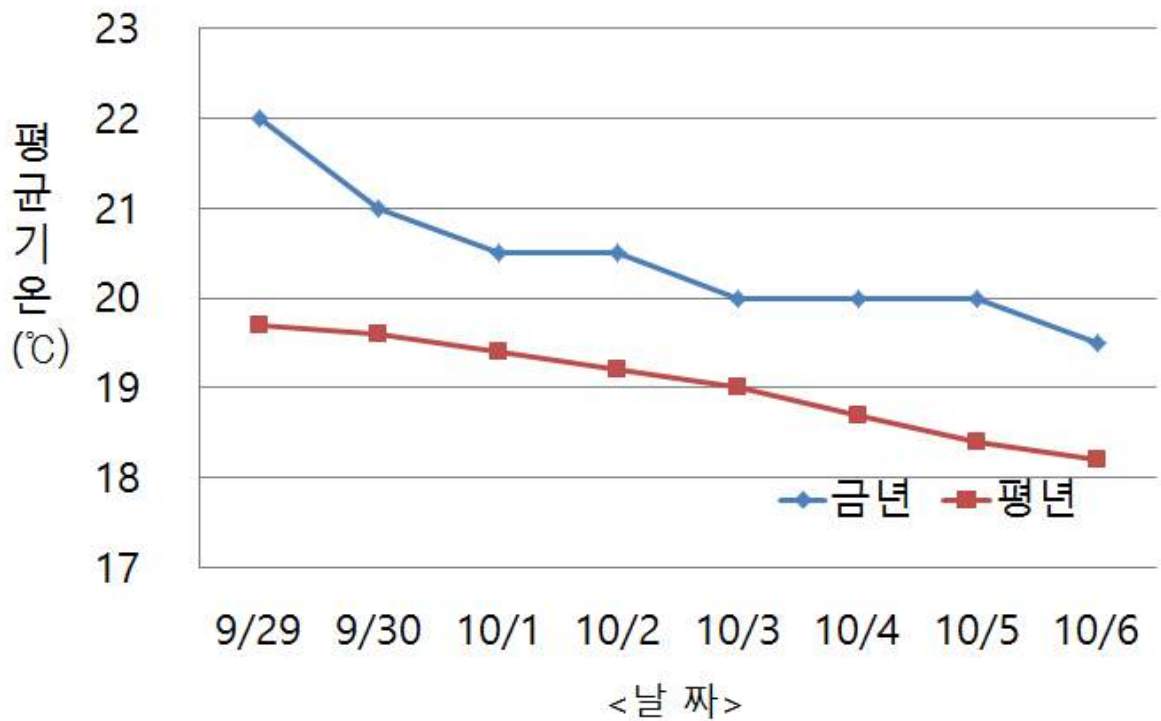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목포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20.4	19.0	1.4	24.0	24.2	-0.2	16.9	15.2	1.7	2.6
9. 29.(목)	22.0	19.7	2.3	24.0	24.6	-0.6	20.0	16.1	3.9	3.3
9. 30.(금)	21.0	19.6	1.4	24.0	24.5	-0.5	18.0	15.9	2.1	3.5
10. 01.(토)	20.5	19.4	1.1	24.0	24.5	-0.5	17.0	15.7	1.3	3.5
10. 02.(일)	20.5	19.2	1.3	24.0	24.4	-0.4	17.0	15.4	1.6	2.9
10. 03.(월)	20.0	19.0	1.0	24.0	24.2	-0.2	16.0	15.1	0.9	2.0
10. 04.(화)	20.0	18.7	1.3	24.0	23.9	0.1	16.0	14.7	1.3	1.9
10. 05.(수)	20.0	18.4	1.6	24.0	23.7	0.3	16.0	14.4	1.6	1.8
10. 06.(목)	19.5	18.2	1.3	24.0	23.5	0.5	15.0	14.2	0.8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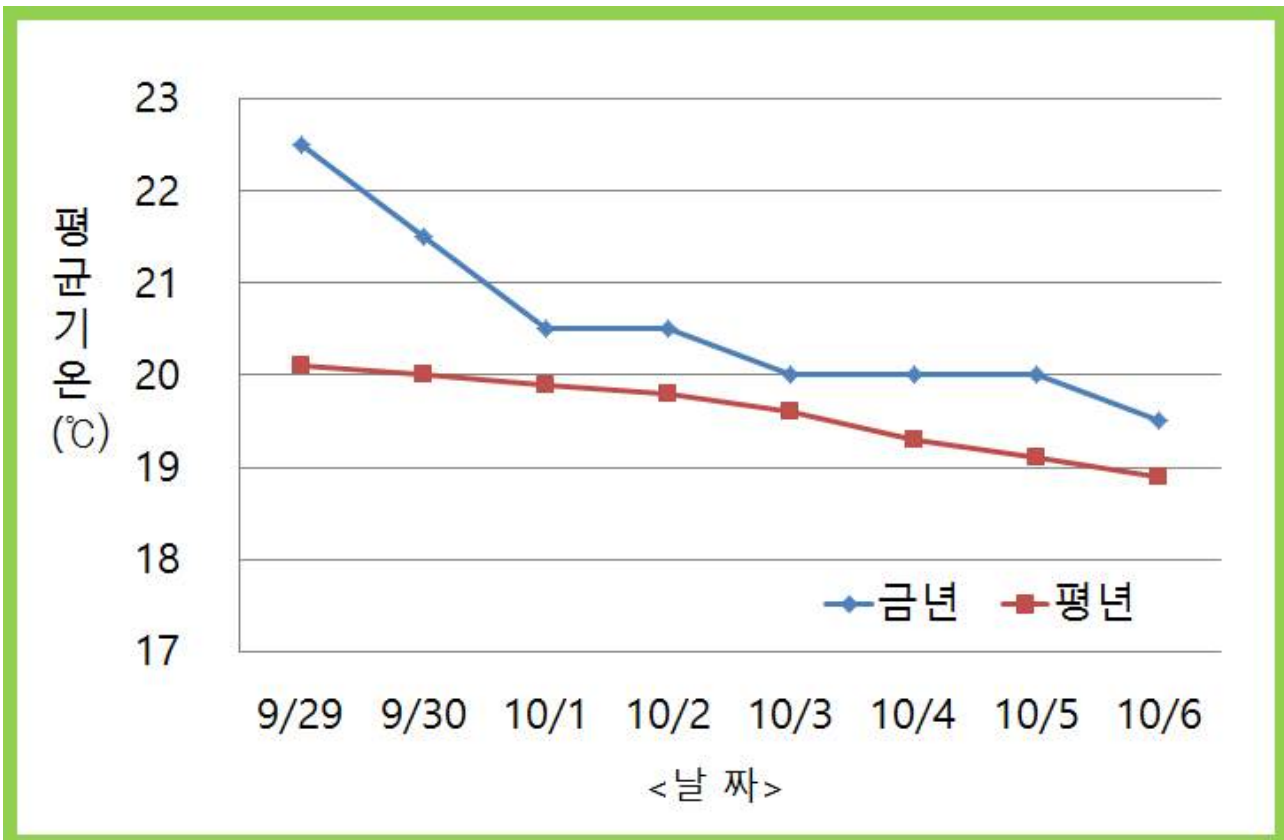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여수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20.6	19.6	1.0	23.3	23.3	0.0	17.9	16.6	1.3	2.5
9. 29.(목)	22.5	20.1	2.4	24.0	23.6	0.4	21.0	17.3	3.7	4.3
9. 30.(금)	21.5	20.0	1.5	24.0	23.6	0.4	19.0	17.1	1.9	3.6
10. 01.(토)	20.5	19.9	0.6	23.0	23.7	-0.7	18.0	16.9	1.1	3.3
10. 02.(일)	20.5	19.8	0.7	23.0	23.6	-0.6	18.0	16.7	1.3	2.5
10. 03.(월)	20.0	19.6	0.4	23.0	23.4	-0.4	17.0	16.5	0.5	1.9
10. 04.(화)	20.0	19.3	0.7	23.0	23.1	-0.1	17.0	16.2	0.8	1.4
10. 05.(수)	20.0	19.1	0.9	23.0	22.7	0.3	17.0	16.1	0.9	1.4
10. 06.(목)	19.5	18.9	0.6	23.0	22.5	0.5	16.0	15.9	0.1	1.6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2.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사과·배 생산, 출하, 가격전망

□ 사과 생산전망 : 생산량 지난해보다 5% 감소 전망

- 추석용 사과인 홍로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7%, 10월 중순부터 출하될 만생종 후지는 5% 감소할 전망이다.

□ 사과 출하전망

- 9월 전체 출하량은 늦은 추석으로 성수기 물량이 9월 하순까지 나왔던 지난해(9. 27.)보다 29% 적을 전망이다. 10월 출하량은 출하 지연되었던 중생종 사과가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어 지난해보다 23%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 사과 가격전망

- 추석 이후 9월(9. 19. ~ 30.) 홍로 도매가격은 상품 10kg 상자에 지난해 동기(2만 9천원)보다 낮은 2만 2천~2만 4천원으로 전망된다.

□ 배 생산전망 : 생산량 지난해보다 2% 감소 전망

- 올해 배 생산량은 지난달 전망치(8% 증가)보다 크게 적은 25만 5천톤으로 지난해보다 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8월 폭염으로 과실의 비대가 매우 나빴기 때문이다.

□ 배 출하전망

- 10월 출하량은 지난해 추석 이후 수요 감소로 상순에 출하가 적었던 것과 비교하여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풋고추 · 애호박 출하, 가격전망

□ 풋고추 출하전망 : 9월 출하량 지난해보다 감소 전망

- 9월 청양계풋고추 출하량은 주산지인 강원 인제·삼척에서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재배면적이 줄고, 여름철 지속된 고온 및 가뭄으로 작황도 좋지 않아 지난해보다 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9월 녹광풋고추 출하량은 강원 홍천 등 출하비중이 큰 강원지역에서 지난해 출하기 가격 약세 영향으로 정식 규모가 축소되고, 바이러스 피해를 입은 농가가 많아 지난해보다 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풋고추 가격전망 : 9월 풋고추 가격 지난해보다 높을 전망

- 9월 청양계풋고추 도매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지난해(2만 3,500원)보다 높은 상품 10kg 상자에 5만 3천~5만 8천원으로 전망된다.
- 9월 녹광풋고추 도매가격은 출하량이 감소하여 지난해(2만 5,400원)보다 높은 상품 10kg 상자에 7만~7만 5천원으로 전망된다.

□ 애호박 출하전망 : 9월 출하량 지난해보다 감소할 듯

- 9월 출하량은 8월의 고온으로 인해 강원·충청지역에서 출하시기가 다소 늦어지겠으며, 주산지의 활착률이 낮고 바이러스 피해가 예상되어 지난해보다 2%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애호박 가격전망 : 9월 애호박 가격 지난해보다 높을 전망

- 9월 애호박 도매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지난해(1만 2,800원)보다 높은 상품 20개에 1만 9천~2만 2천원으로 전망된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6. 09. 26.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9/26)	1주일전 (09/1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량 작물	쌀(일반계)	20kg	33,800	34,000	36,000	39,800	41,333	↓ 15.1	↓ 18.2
	콩(백태)	35kg	152,000	152,000	152,000	137,000	185,800	↑ 10.9	↓ 18.2
	고구마(밤)	10kg	26,400	26,200	28,240	22,400	25,240	↑ 17.9	↑ 4.6
	감자(수미)	20kg	25,200	25,800	22,720	24,800	26,507	↑ 1.6	↓ 4.9
채 소 류	배추(고랭지)	1kg	1,980	1,980	1,948	663	799	↑ 198.6	↑ 147.8
	양배추	10kg	9,100	10,200	7,460	6,475	7,825	↑ 40.5	↑ 16.3
	오이(다다기계통)	10kg	32,333	30,000	45,067	20,083	24,632	↑ 61.0	↑ 31.3
	애호박	8kg	21,600	24,600	21,240	12,450	14,683	↑ 73.5	↑ 47.1
	토마토	10kg	28,200	29,200	20,520	27,700	32,290	↑ 1.8	↓ 12.7
	당근	20kg	44,600	45,400	48,000	34,800	46,760	↑ 28.2	↓ 4.6
	건고추(화건)	60kg	640,000	640,000	560,000	830,000	951,333	↓ 22.9	↓ 32.7
	풋고추	10kg	56,600	90,000	93,200	27,650	32,863	↑ 104.7	↑ 72.2
	마늘(깐마늘)	20kg	140,000	140,000	132,000	133,000	108,027	↑ 5.3	↑ 29.6
	양파	20kg	18,600	18,400	17,120	28,000	18,373	↓ 33.6	↑ 1.2
	대파	1kg	2,470	2,300	2,144	1,965	1,778	↑ 25.7	↑ 38.9
	파프리카	5kg	25,400	27,800	22,440	24,100	30,880	↑ 5.4	↓ 17.7
	멜론	8kg	19,800	22,800	21,520	20,950	23,181	↓ 5.5	↓ 14.6
	방울토마토	5kg	21,400	20,800	17,240	14,200	18,563	↑ 50.7	↑ 15.3
	수박	1개	14,800	15,200	22,840	12,850	11,883	↑ 15.2	↑ 24.5
과 일 류	사과(홍로)	10kg	34,200	40,000	43,280	40,767	37,713	↓ 16.1	↓ 9.3
	배(신고)	15kg	41,800	43,000	55,000	43,800	42,733	↓ 4.6	↓ 2.2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9/26)	1주일전 (09/1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26,000	546,000	550,000	530,000	559,000	↓ 0.8	↓ 5.9
	느타리버섯	2kg	14,200	15,200	15,440	16,700	14,103	↓ 15.0	↑ 0.7
	새송이버섯	2kg	8,800	9,000	7,880	9,150	8,997	↓ 3.8	↓ 2.2
축 산 물 (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7,978	8,110	8,100	7,556	6,799	↑ 5.6	↑ 17.3
	돼지고기(삼겹살)	100g	2,176	2,068	2,053	1,990	1,894	↑ 9.3	↑ 14.9
	닭고기	1kg	5,607	5,242	5,593	4,659	5,541	↑ 20.3	↑ 1.2
	계란(특란)	30개	5,528	5,651	5,350	5,610	5,768	↓ 1.5	↓ 4.2
	우유	1리터	2,555	2,551	2,551	2,547	2,437	↑ 0.3	↑ 4.8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6. 09. 26. 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률(%)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5,984 천원	5,945 천원	5,599 천원	↑ 0.6	↑ 6.8
	거세	7,078 "	7,213 "	6,967 "	↓ 1.8	↑ 1.5
송아지 (6~7월)	암	2,893 "	2,878 "	2,749 "	↑ 0.5	↑ 5.2
	수	3,811 "	3,839 "	3,455 "	↓ 0.7	↑ 10.3
육우(600Kg)		3,232 "	3,187 "	3,491 "	↑ 1.4	↓ 7.4
젓소수송아지(7일령)		364 "	364 "	223 "	- 0	↑ 63.2
돼지(110kg)		366 "	421 "	393 "	↓ 13.3	↓ 6.8
육계(원/kg)		1,637 원	1,431 원	1,118 원	↑ 14.3	↑ 46.4
계란(원/특란10개)		1,282 "	1,339 "	1,281 "	↓ 4.2	↑ 0.1
오리(원/kg)		1,667 "	1,667 "	2,333 "	- 0	↓ 28.5

※ 한우(거세우) 생산비 : 7,137원/마리 (△59)

* (5,658 - 2,332 + 3,811 = 7,137)
('15년 생산비) ('15년 송아지 가격) (현재 수 송아지 가격)

- 육우 3,798, 돼지 297/110kg, 육계 1,278원/kg, 오리 1,944원/kg, 계란 1,051원/10개, 우유 763원/l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4.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나주시, 쌀귀리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

- 올해 20ha에서 2018년까지 50ha로 확대... 판로확보와 우량품종 공급 -

- 나주시는 쌀귀리를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기로 하고 올해 20ha의 재배면적을 2018년까지 50ha로 늘려 나가기로 했다.
- 또 재배농가와 전문 가공업체와의 계약재배를 유도해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순도 높은 우량품종을 공급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원종을 확보해 증식포를 운영할 계획이다.
- 시 배기술지원과 관계자는 “지난해 6농가 1.4ha에서 시범재배를 실시한 결과 10a당 65만원 정도로 일반 쌀보리에 비해 높은 소득을 거둬 가능성을 확인함에 따라 재배면적을 확대하게 됐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 시는 지난 20일 농업기술센터 교육장에서 국립식량과학원 전문연구원을 초빙, 지역특화작목 육성과 안정적인 재배기술 교육을 통한 농업인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 이날 교육에서는 건강기능성 식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잡곡소비량이 증가하는 트렌드에 부응하고,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인 쌀귀리를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쌀귀리는 미 FDA가 인정한 건강식품으로 베타글루칸 성분이 다량 함유 돼 동맥경화 예방은 물론 식이섬유가 풍부해 다이어트에도 효능이 뛰어난 기능성식품으로 소비자들의 선호를 받고 있는 작목이다.

* 출처 : 나주시

■ 광양시, 문화행사가 있는 날, 지역특산품도 있어

- 9. 28. 금호동 백운쇼핑센터에서, 자매도시 남원시·하동군도 참여 -

- 광양시가 오는 9월 28일(수요일) 오후 3시부터 금호동 백운쇼핑센터 일원에서 '문화가 있는 날' 행사와 함께하는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광양시와 금호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날 직거래 장터에는 자매도시인 남원시와 하동군이 참여해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며, 벼룩시장과 다양한 먹거리 장터도 함께 열린다.
- 판매품목은 광양시는 배·밤·애호박·오이·재첩·감자·생강·매화빵 등을, 남원시는 묵류·추어탕·모시떡·들깨강정·누룽지 등을, 하동군은 유정란·유색미(색깔있는 쌀)·두부 등이다.
- 이번 직거래 장터를 통해 생산자는 농산물을 제 값에 팔아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소비자는 신선한 농산물을 유통단계 없이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농가와 주민 모두를 만족시킬 것으로 보인다.
- 한편, 금호동에서는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다양한 길거리 공연이 함께하는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진행해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 5월 25일 첫 번째 공연과 함께 직거래장터를 운영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 출처 : 광양시

■ 곡성군, 건강 식재료 ‘히카마’를 아시나요

- 곡성군기술센터(소장 김인수)는 이색적인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건강 식재료로 각광받고 있는 히카마(jicama)를 시범 재배해 수확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 히카마는 미국 허핑턴포스트지가 선정한 ‘세계 20대 건강식품’에 이름을 올렸고, 양빈 또는 멕시코감자라고도 불리며 멕시코, 동남아 등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다. 천연 인슐린이라 불리는 이눌린 함량이 높고, 각종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이 풍부하며 열량이 100g당 40kcal 밖에 안 되는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 히카마는 콩과의 덩굴식물로 줄기에 열매가 달리지만 천연 살충제 성분이 있어 식용이 어렵고, 덩이뿌리는 배·무·밤 맛이 나는 아삭한 식감을 가져 점차 소비가 확대되고 있다.
- 히카마 구매를 희망하는 분은 ‘곡성 히카마’를 검색하시거나 노병길 농가(010-7213-8383)에 연락하면 품질 좋은 히카마를 구매할 수 있다.

* 출처 : 곡성군농업기술센터



■ 보성군, 비봉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확정

- 오는 2020년까지 테마공원 조성 체험과 힐링의 농촌변신 -

- 보성군(군수 이용부)에서는 득량만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기본 계획안 보고회와 주민대표 설명회 등을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2020년까지 총 90억원을 들여 득량면 비봉지구 일대에 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 주요 사업에는 호박터널, 세죽장, 찜킨힐, 캐라반, 오토캠핑장, 글램핑, 원두막, 전망대 등 농촌체험과 휴식을 병행한 체류형 힐링공간이 조성된다.
- 이번 사업은 도시와 구별되는 농어촌 특유의 독특한 자연·문화·사회자원을 토대로 다양한 콘텐츠로 공원을 조성하여 관광객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레저·체험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도·농교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인근에 위치한 득량 비봉공룡공원, 득량만바다낚시공원, 선소어촌체험장, 해양복합레저단지 등 주변개발계획과 연계된 관광벨트가 형성되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다.
- 군 관계자는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도입으로 주민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 보성군



■ 강진군, 귀농이 궁금하면 강진군으로 캠핑하세요

- 캠핑으로 배우는 귀농체험교육 교육생 모집 -

- 남도답사 1번지 전남 강진군이 서울·광주 등지의 예비 귀농인들을 모집하여 10월 14일부터 16일 2박 3일간 「캠핑으로 배우는 귀농·귀촌체험교육」을 진행한다.
- 이번 프로그램은 귀농·귀촌과 캠핑을 연계하여 진행되며, 이주 희망 도시민을 대상으로 선도농장 견학, 마량놀토, 가우도 등의 강진문화재 탐방과 가족과 함께하는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했다. 또한 자세한 귀농정책 및 도시민유치지원사업 설명도 이어져 귀농을 준비하는 도시민들이 현실적인 정보를 얻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특히 강진군은 타지역 귀농체험과는 차별화하여 교육생을 전국 귀농·귀촌운동본부, 귀농·귀촌 종합센터, 천안연암대학교 귀농지원센터, 광주·전남 귀농학교 등 온라인을 통한 홍보로 받고, 교통비 자부담을 통해서 단순 관광객을 배재시키고 귀농에 적극적으로 관심 있는 도시민들의 접수를 받고 있다.
- 신청은 강진귀농사관학교 (061-434-2431)에서 선착순 신청을 받고 있으며 강진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및 강진군귀농인협의회 카페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 한편, 강진군은 전국 최초의 귀농지원조례를 제정한 귀농·귀촌 1번지의 원조로서 전국 최초의 귀농사관학교 설립 등 귀농정책의 노하우와 열정으로 현재까지 총 2,400명(인구의 6%)이 성공적으로 귀농했으며, 종합프로그램 ‘귀농드리미’로 도시민들의 관심을 크게 받으며 명실상부 귀농하기 가장 좋은 곳으로 손꼽히고 있다.

* 출처 : 강진군

■ 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가 편의제공을 위한 근무체제 개선

-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가을철 농번기를 맞아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농기계 임대이용 활성화를 위해 9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근무시간 연장 및 국·공휴일 근무제를 실시한다.
-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이용은 영광군의 관내 농업인으로서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농기계 임대사용이 가능하다.
- 농번기를 맞이하여 조기 영농작업 활동을 도모하고, 임대농기계의 이용률을 높이고자 매일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근무하는 농번기 12시간 근무제를 실시하는 한편, “국·공휴일 근무제 실시와 12시간 근무제”를 병행해 질 좋은 서비스 제공과 정부 3.0실현에 기여하고, 농업인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공감행정과 소통행정에 한발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했다.
- 정용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새벽 같이 찾아오는 내방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날 오후 5시에 출고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농업인께서는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 출처 : 영광군



■ 완도군, '완도 자연그대로' 대한민국 올해의 히트상품 대상 수상

- 지난 3월, 한국브랜드 선호도 1위 선정에 이어 2관왕 달성 -

- 완도군(군수 신우철)의 농축산 공동브랜드 상표인 '완도 자연그대로'가 지난 9월 7일 「2016 대한민국 올해의 히트상품」대상을 수상했다.
- 2015년 7월 특허청에 상표 출원하여 “완도 자연그대로” 브랜드로 소개된 이후 금년 3월 “2016 한국브랜드 선호도 1위” 선정에 이어 소비자들이 그 가치를 인정한 두 번째 성과이다.
- “완도 자연그대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에 대한 우수성을 부각시키고, 차별화된 마케팅을 전개하기 위해 완도군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리미엄 농·축산물 브랜드 명칭이다.
- 완도군은 민선 6기 출범과 동시에 건강의 섬 완도의 브랜드 가치를 확고히 하고, 친환경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완도 자연그대로 농법” 실천을 군정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 그동안 청정자연을 바탕으로 바이오기능수 보급, 해풍이 작물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통해 안전하고 질 좋은 농·축산물 생산기반 구축과 함께 농·축산업 종사자의 의식 고취,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 확대 등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실천 기반을 구축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여 왔다.
- 또한 대도시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 운영과 전북·미역데이 등 소비자 맞춤형 Day-마케팅 행사를 추진하면서,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운동을 전개해 농·수·축산업의 동반성장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

* 출처 : 완도군

■ 장성군, 미래농업 돌파구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 농업기술센터, 22일부터 농업인 40명 대상 '농산물 가공창업 기초과정 운영' -

- 장성군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더해주는 가공사업 집중 육성에 나섰다.
- 농업기술센터는 농산물 가공 전문 인력양성을 위해 9월 22일부터 10월까지 매주 목, 금요일, 주 2회에 걸쳐 '농산물 가공창업 기초반 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 교육은 가공사업에 관심있는 농업인들 위해 창업에 필요한 절차, 관련법규, 소규모 가공창업 절차, HACCP 등 가공 창업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내용들로 준비했다.
- 농산물 가공창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4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이후 11월에 운영되는 교육은 기존 수료생들 대상으로 선발해 심화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장성군은 국비 5억을 포함 총 20억원을 들여 497m²규모로 HACCP 인증기준 시설인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구축, 53종 62점 가공장비를 갖추고 있고 최근 이곳에서 쌀을 재료로 조청을 만드는 시연을 보이기도 했다.
-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주스·잼·푸딩·퓨레·조청·건조·분말·환 등 다양한 가공식품이 제조되도록 시도할 계획이다. 시제품 생산은 품질검사 및 포장재 제작 등 상품화를 위한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부터는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 출처 : 장성군

5.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전남 농수산물 1천만달러 미국 수출키로

- 이 지사, 로스앤젤레스에서 한남체인 그룹과 1년 수출협약 -

- 미국을 방문 중인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22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하기환 한남체인 그룹 회장을 만나 전남 농수산물 1천만달러 수출협약을 체결했다.
- 협약에 따라 한남체인은 앞으로 1년 동안 전남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현지 바이어를 통해 수입한다.
- 한남체인은 캘리포니아주에 7개 마트를 운영, 연간 1억 3천만달러의 매출액을 자랑하는 유통업체다.
- 최근 매년 700~800만 달러어치의 전남산 농수산물을 수입해 교포 등에게 판매해 왔으며 이번 협약 체결로 수입량이 더 늘었다.
- 하기환 회장은 “전라남도와의 협약이 체결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전남산 농수산물을 미국 교민들에게 소개 하겠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 이낙연 도지사는 “농어민들이 농수산물 유통보다는 생산에 전념하는 상황에서 한남체인이 수출 기회를 줘 감사하다”며 “믿고 먹을 수 있는 친환경 농수산물을 계속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 이 지사는 협약 후 제43회 로스앤젤레스 한인축제에 참석, 축제장에 마련된 전남 농수산물 부스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한인 사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 출처 : 전라남도

■ 신안군 수출 효자작물 “배” 미국 수출 시작

- 당도가 높고 식감이 좋아 미국에서도 선호 -

- 청정해역 갯벌 토양에 게르마늄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으며 풍부한 일조량과 해풍을 맞고 자란 2016년산 “신안배”가 미국 수출을 위해 9월 22일 첫 선적을 하였다.
- “신안배”는 맛이 아삭아삭하고 식감이 좋으며 당도가 12.5°Brix 이상으로 미국 교민을 비롯한 현지인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 신안배영농법인에서는 지난 1999년부터 매년 500~800톤을 미국 LA 및 캘리포니아주 등에 수출하여 왔고, 금년에는 약 600톤을 수출하여 15억원의 농가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신안배 수출단지는 102농가가 참여해서 105ha를 재배하고 있으며 연간 2,500톤을 생산하여 호당 약 45백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미국 수출 배 선별을 위해 9월 20일부터 약 2개월간에 걸쳐 지역 주민 50여명을 고용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신안배영농법인 대표(최홍균)는 금년에는 폭염 및 지속된 가뭄으로 물이 부족하여 예년에 비해서 배 결실상태가 좋지 않았고 농가들의 어려움도 많았으나, 추석 연휴기간에 태풍의 영향으로 인한 집중 호우로 가뭄이 해갈되어 평년 보다는 다소 적은 수확량을 예상하지만 대체로 만족한다고 밝혔다.
- 신안군은 앞으로도 배 수출농가의 소득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위해 생력 농기계, 관수시설, 포장재 등 신안배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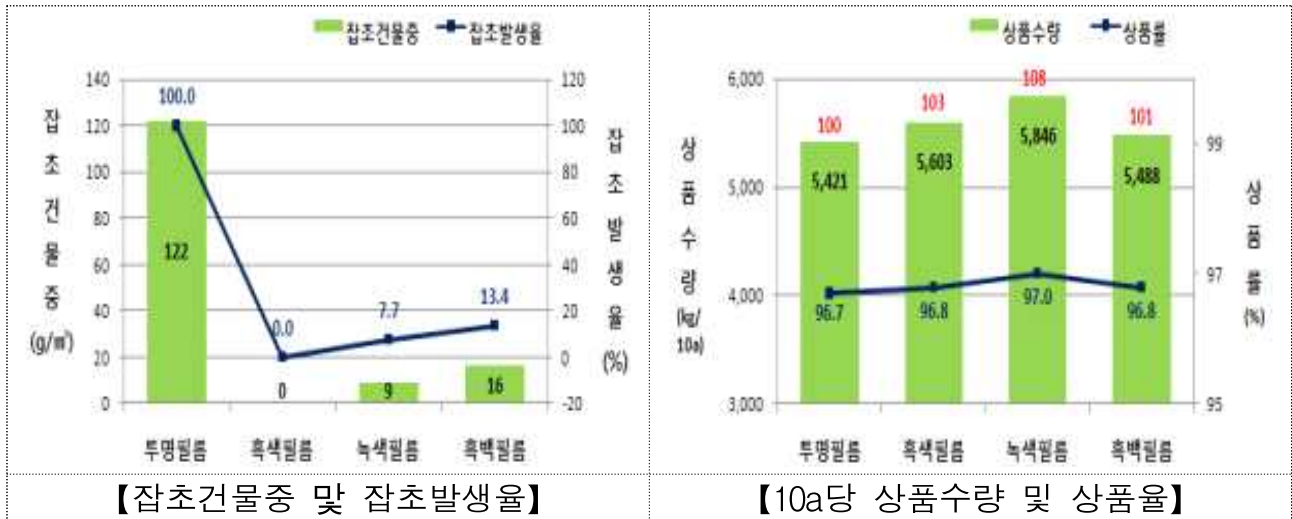
* 출처 : 신안군

6.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인디언시금치 가을작형에 알맞은 토양 멀칭필름 선발

개발기술 내용

- 인디언시금치 가을작형 월동재배에 알맞은 토양멀칭 자재 : 녹색필름
 - 잡초방제가가 92.3%로 높고 주당 신초수와 신초중이 많고 무거워 상품 수량이 투명 필름 대비 8% 증수



개발기술 활용 및 보급계획

- 인디언시금치 겨울 월동재배 농가에 영농활용 기술로 보급
- 아열대채소 연구개발 신기술 재배 지침서 및 교육용 자료로 활용

기술개발 파급효과

- 월동기 생산성 증가로 상품수량 증수 : 425kg/10a(5,421 → 5,846)
- 농가소득 증대 : 1,798천원/10a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정효진, 손동모

■ 배의 가공 조건 및 품종에 따른 단백질 분해 효능

□ 개발기술 내용

○ 배 가공시 연육효과를 높이기 위한 가공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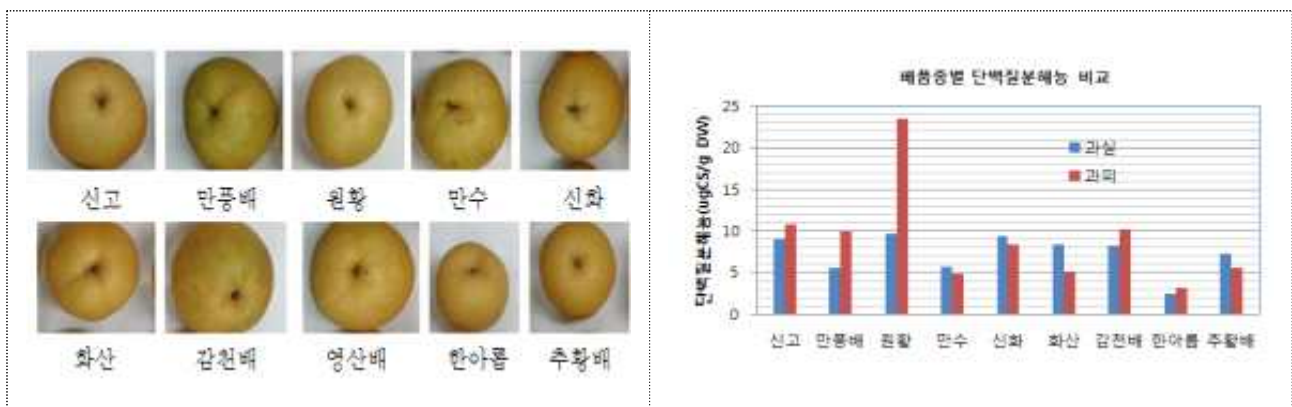
- 생과실 > 동결건조(생과실의 50~70%) > 열풍건조(생과실의 20~40%)

○ 배품종별 단백질 분해 효능 비교

- 생과실 : 원황, 신화, 신고 > 화산, 감천배

- 동결건조 : 만풍배 > 화산, 원황 > 신고

- 열풍건조 : 만풍배 > 화산, 신고, 감천배



□ 개발기술 활용 및 보급계획

○ 도내 배 가공업체 기술지원 및 재배농가 영농교육 자료로 제시

□ 기술개발 파급효과

○ 배 품종별 단백질 분해효소에 대한 과학적 근거 자료로 가공 이용시 활용 및 소비촉진 유도로 재배농가 소득증대 : 10% 이상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 남승희

■ 흑목이 『용아』 (JNM-Mi-194)

□ 품종 주요특성

- 갓은 진갈색으로 표면에 주름이 중간정도이며 부채꼴형임
- 뒷면에는 흰색 잔털이 거의 없음
- 조기발이형으로 자실체 발생수는 대조품종 보다 많은 편임
- 항산화 함량이 높고 씹힘성이 우수함
- 갓이 얇고 저장성 및 병해충에 강함
- 원균배양에 알맞은 배지는 MCM, YM, 맥아, PDA임



□ 재배상 유의점

- 재배기간 중 시설내 습도 유지와 환기에 유의
- 버섯 발생시 수분 공급이 적어지면 발이가 늦어지고 균일하지 않음
- 15℃ 이하에서 재배시 자실체의 크기가 작아지고 두꺼워지며 형태가 균일하지 못하며 재배환경에 따라 생육에 차이가 날 수 있음

□ 육성 품종 보급계획 및 파급효과

- 국내 육성 품종 보급체계 구축 및 품종 등록 추진
- 목이류 등 7품목 로열티 경감 연간 52억원 예상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식량작물연구소 김길자

■ 토마토 『라이토』 (전남3호)

□ 품종 주요특성

- 초세가 안정되어 있고 무한형태로 숙기가 비교적 빠름
- 과실은 검붉은색(초콜릿색)으로 균일하며 과실면의 광택이 좋음
 - 과중은 140g정도이며, 1화방당 5~6과 착과
- 생식용으로 항산화물질(라이코펜)과 베타카로틴 함량이 많음



【전남3호】

계통명 (품종)	꽃차례 형 태	미 숙 과실의 색	성 숙 과실의 색	심실의 수	당도 (° Bx)	수량 (kg/10a)
전남3호	단화방	연녹색	초콜릿색	4~5	6.0	6,403
신흑수 (대비품종)	단화방	녹 색	검붉은색	3~4	6.1	6,249

【육성계통 주요특성 비교】

□ 재배상 유의점

- 고온에는 과색의 색택과 열과의 현상이 발생하므로 고온기 수확은 피하는 게 좋음
- 착과는 수정벌을 이용하여 착과시키고 가급적 생장호르몬 착과제는 피함
- 흑색토마토 검붉은색의 색택을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초세가 강하고 비분이 충분히 유지 될 수 있도록 관리

□ 육성 품종 보급계획 및 파급효과

- 흑색토마토 보급 연중 계획 : 3ha('14) → 10ha('16)
- 브랜드화로 농가소득 향상 : 22% 향상(8,617 → 10,503천원/10a)
- 흑색토마토 품종육성으로 수입대체 효과 : 4~5억/년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서종분

■ 천연오일 이용 유자 가향 홍차 제조방법

□ 개발기술 내용

○ 홍차 제품 품질 고급화를 위한 천연오일 유자 가향 혼합방법

- 봄, 여름, 가을홍차 + 유자오일 5~7% 스프레이식 방법 직접 혼합한 다음 실내 상온($25\pm 4^{\circ}\text{C}$)에서 가향 후 10~30일 숙성



□ 개발기술 활용 및 보급계획

- 봄, 여름, 가을 홍차 + 유자오일 5% 혼합홍차 서울 지역 판매
 - 홍차 시제품 3kg 판매 → 유자홍차 4,500원/잔/레스토랑

□ 기술개발 파급효과

- 연중 홍차 제품 생산 및 차 소비량 증대 : 수입발효차 200억 대응
- 국산홍차의 품질 고급화 및 다양화로 차 생산 농가소득 50% 증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 최 정

■ 메뚜기 분말을 이용한 머핀 제조 방법

□ 개발기술 내용

- 건조된 메뚜기를 250um이하로 분쇄한 다음 반죽조성에 따라 제조
 - 버터를 2분간 반죽한 후 설탕과 소금을 넣고 2분간 반죽
 - 달걀을 넣으면서 5분간 섞고 체친 박력분, 베이킹파우더, 메뚜기 분말을 넣어 혼합한 다음 물을 넣어 반죽
 - 머핀컵에 완성된 반죽을 넣고 윗불 185, 아랫불 150℃로 예열된 오븐에서 30분간 구워낸 다음 실온에서 1시간 방냉

조성	밀가루 (박력분)	메뚜기 분말	버터	설탕	소금	달걀	물	베이킹 파우더
단위(g)	196	4	170	160	2	170	60	5

- 메뚜기 분말을 2% 첨가한 머핀이 색, 맛, 향, 질감 등 기호성이 우수 하였고 저장기간은 8일임

□ 개발기술 활용 및 보급계획

- 식용곤충의 혐오감 해소를 위한 가공식품 개발로 새로운 소비처 확보
- 곤충 사육 농가 및 가공업체에 교육, 기술이전 및 보급

□ 기술개발 파급효과

- 메뚜기 가공품 개발로 부가가치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 : 원재료 판매 대비 8배(390천원/머핀 500개)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곤충잠업연구소 김현진

■ 9~10월은 겨울철 풀사료 파종적기

- 이탈리아라이그라스 10월 상순, 청보리 10월 하순까지 파종 마쳐야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사료비 절감과 친환경 축산을 위해 겨울철 주요 풀사료인 이탈리아라이그라스(IRG)와 청보리 등을 파종 적기인 9~10월 맞춰서 파종하도록 당부하였다.
- 전라남도는 풀사료 재배가 가능한 많은 논을 보유하고 있고, 겨울철 기온이 다른 지방보다 따뜻해 풀사료 재배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 최근 들어 가을철에 비가 자주와 파종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파종 시기를 놓치게 되면 겨울철 생육이 나빠지고 내년도 수확량이 떨어지게 된다. 수확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IRG는 10월 상순까지 파종을 완료해야 하며, 벼가 있는 논은 벼 수확 10~15일 전 파종을 하고, 청보리는 10월 하순까지 파종을 완료해야 한다.
- 한편 전남농업기술원은 최근 풀사료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안정적 재배를 위해 IRG, 청보리 등 재배기술 리플릿 1만매를 제작해 축산농가에 보급했다.
- 전남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차성충 과장은 IRG 1ha당 파종량은 40~50kg, 청보리는 150~200kg를 파종하고, 너무 많은 양의 종자를 파종하면 봄철 생육이 불량해지고, 쓰러짐이 발생하여 풀사료의 질과 수량이 떨어지므로 파종시기와 기준 파종량을 꼭 지켜주며, 과습에 대비한 배수로 정비와 눌러주기를 꼭 해줄 것을 당부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종자관리소, 2016년산 벼 우량종자 본격 수확

- 운광·새일미·신동진 등 9품종, 200톤 예상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에서는 전남 쌀 품질향상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리 도 재배여건에 알맞은 벼 종자 9개 품종 197톤을 생산목표로 지난 5월 17일 첫 모내기 이후 4개월여 만에 수확에 들어갔다.
- 종자관리소에서는 소비자가 선호하고 지역여건에 적합한 우량종자 생산을 위해 지난 2월 전남도를 비롯하여 농업기술원 식량작물 연구소, 종자관리소, 국립종자원 전남지원, 국립식량과학원 작물 육종과, 시·군RPC 대표 등이 참여한 종자생산협의회를 개최하여 새일미·새누리·신동진 품종을 선정하고, 종자생산 표준관리지침을 마련하였다.
- 또한, 무병 건전모 육성을 위한 볍씨 소독 실시, 보온절충 못자리를 설치하여 40ha 논에 모내기를 완료하고, 포장별 병해충 정밀 예찰을 통한 사전방제와 이형주, 잡초 제거 등 엄격한 포장관리로 우량종자 생산을 위해 만전을 기해 왔다.
- 이번에 수확하는 새일미 등 9개 품종 종자는 국립종자원 포장검사와 종자검사를 거쳐 40kg포대 단위로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동 농업인 상담소를 통하여 분양 신청을 받아 희망농가에 공급한다.
- 분양가격은 2017년 1월에 고시되는 정부 보급종 분양 가격보다는 저렴하게 결정하여 도내 농가의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 종자관리소는 벼 종자 이외에도 콩·팥·녹두 등 두류와 보리·밀 등 맥류와 잡곡류 등 연간 300여톤의 우량종자를 생산·공급하여 전남 농산물 품질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 종자분양과 관련한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전남종자관리소로 전화 (062-944-0402)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가뭄에 강한 벼 품종 개발 기반 마련

- 농촌진흥청, ‘가뭄 저항성 분자마커’ 개발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농업용수 부족을 대비해 가뭄에 강한 벼 품종을 개발할 수 있는 ‘가뭄 저항성 분자 마커’를 개발해 특허 출원했다.
- 연구진은 먼저 가뭄에 강한 유전자를 찾기 위해 국립식량과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벼 유전자원 815종 중 가뭄에 매우 강하고 생산이 안정적인 통일형 품종 ‘삼강벼’를 선발했다.
- ‘삼강벼’는 벼가 가뭄에 가장 취약한 시기인 이앙 이후 생육초기에 가뭄이 발생하더라도 벼 분얼(새끼치기) 발달이 안정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 유전자 동정기술을 이용해 ‘삼강벼’에서 가뭄 저항성이 있는 유전자좌(QTL)2) 3개를 발견했으며, 이를 활용해 일반 벼 품종에서 가뭄 저항성 유전자들을 확인할 수 있는 3종의 분자 마커를 개발했다. 실험결과, 벼 생육초기에 가뭄이 발생하면 가뭄에 민감한 품종은 분얼(새끼치기)이 50% 이상 감소하지만, 3개의 유전자좌(QTL) 모두를 가진 벼 품종과 계통들은 수량 감소 비율이 15% 정도에 불과해 재배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농촌진흥청은 개발한 마커를 이용해 ‘삼광’, ‘새일미’ 등 고품질 품종과 인공 교배를 통해 가뭄 저항성 벼 계통을 선발, 육성 중에 있다.
- 농촌진흥청 논이용작물과 신동진 농업연구사는 “분자마커를 이용해 가뭄에 강한 벼 품종을 육성하면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 등 가뭄에 대해 미리 대응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콩 적정 수확시기와 수확 전·후 관리방법

- 꼬투리 덜 여물었다면 물대기 해주고, 적용 약제로 병해 방제해야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콩의 성숙기가 다가옴에 따라 콩 적정 수확시기와 수확 전·후 관리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 올해 여름은 평년에 비해 온도가 높고, 강수량이 적어 가뭄이 심한 밭은 콩 꼬투리의 발육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을 대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가뭄이 해소된 뒤에는 질소비료로 영양분을 보충해주는 것이 좋다.
- 또한, 콩 수확기에는 미라병이나 자주무늬병 등이 문제가 되는데 특히 자주무늬병은 수확기 종자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 자주무늬병 피해

▲ 미라병 피해

- 자주무늬병은 테트라코나졸유제나 트리플루미졸수화제 등 트리azole계통 약제를 이용해 꽃이 피기 시작하거나 꽃이 핀 이후부터 10일 간격으로 2~3회 방제하되, 안전사용 기준에 맞춰 수확 20일 전까지만 사용해야 한다.
- 콩 수확적기는 잎이 누렇게 변해 떨어지고 꼬투리의 80~90%가 고유 성숙 색깔(담황색 또는 담갈색~갈색)로 바뀐 뒤 7~14일이다. 이때 콩알의 수분함량은 18~20% 정도가 된다. 단, 콤바인 수확·탈곡 시 종실 수분함량은 13~15%가 적당하다.
- 10a 내외의 소규모 재배 농가는 배부식 잡초예취기, 30a 내외의 중규모 농가는 바인더(예취기), 1ha 이상 대규모(단지) 농가는 콤바인으로 수확한다.
- 수확 후에는 2~3일 건조한 다음 탈곡하며, 탈곡기의 회전속도는 보통 300~400rpm 정도가 알맞다. 다만 콩알의 수분함량이 많을 때는 회전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하고 낮을 때는 느리게 조절한다. 탈곡한 콩은 수분함량 12% 내외로 건조해 보관한다.
- 이때 종자용이나 나물용 콩은 고온에서 건조하면 발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햇볕을 이용해 말리는 것이 좋다. 부득이 건조기를 이용할 때는 온도를 40℃ 이하의 바람으로 말린다.
- 농촌진흥청 오인석 발작물개발과장은 “질이 우수한 콩 생산을 위해서는 재배과정과 더불어 콩의 수확과 건조 및 저장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고품질 콩 육성과 더불어 수확 후 품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연구에도 주력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맛 좋고 수량 많은 고구마 재배 확대 위해 전문가 모인다

- 무안서 고구마 시험연구 현장 평가 및 새 품종 보급 확대방안 협의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22일 국립식량과학원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전남 무안)에서 국내 육성 고구마 품종의 우수성을 알리고 재배면적을 확대하기 위한 협의회를 열었다.
- 이 자리에는 고구마 주산지역 농업기술센터, 생산자 단체, 유통업체 등 12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협의회에서는 새 품종 고구마 ‘풍원미’, ‘호감미’, ‘단자미’와 2017년 출원 예정인 우량계통 ‘목포90호’ 등을 시험재배지에서 직접 평가하고 맛보는 시간을 갖는다.
- 이어 △‘풍원미’의 우수성과 시장반응 소개 △‘호감미’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거점단지 조성방안 △바이러스 무병묘 생산과 증식, 보급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에서는 국산 고구마의 재배 확대를 위해 맛 좋고 수량 많은 고구마 품종을 개발, 보급하고 있다.
- 그 중 ‘풍원미’는 지난해 해남·논산·김제 등에 거점단지를 38ha 조성해 씨고구마를 생산, 보급했으며, 올해 여주·논산·김제·해남·영암 등 고구마 주산지에서 500ha 정도 재배되고 있다.
- ‘호감미’는 올해 농가보급용 씨고구마 생산과 농가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여주 등 8개 지역에 총 4.5ha 정도의 거점단지를 조성했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재배면적을 확대할 계획이다.
- 이 외에도 바이러스 무병묘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해남군농업기술센터 등 10곳에 무병묘 생산기술을 이전했으며, 이후 무병원주 분양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남상식 농업연구관은 “앞으로도 새 품종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시·군농업기술센터, 생산자 단체, 법인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새 품종 씨고구마 증식과 보급에 힘써 국내육성 품종의 재배면적을 넓혀 나가겠다” 라고 전했다.
 - * 출처 : 농촌진흥청



▲ 풍원미



▲ 호감미

국내 육성 최고의 새 품종 배 한자리에 모인다

- 23일 배연구소에서 소비, 생산, 유통, 정책이 함께하는 평가회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23일 배연구소(전남 나주)에서 시장성이 유망한 우수 국산 배 품종에 대한 현장평가회를 실시했다.
- 이번 평가회는 정부3.0 소통의 자리로 소비자, 재배농가, 서울 가락동 농산물시장 중·도매인과 경매사 등 200여명이 참석해 새 품종 시식과 기호도 평가, 재배 컨설팅을 실시했다.
- 이 자리에서 우수한 품질을 가졌음에도 초기 시장진입이 어려운 새 품종 배를 유통관계자들에게 소개하고,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았다.
- 평가받는 배 품종은 ‘신화’, ‘황금배’, ‘화산’ 등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로부터 각광받는 11품종이다.
 - 11품종 : 한아름·원황·조이스킨·신화·슈퍼골드·설원·황금배·화산·만풍배·그린시스·만황

- 대표적으로, 테니스공 크기의 껍질째 먹는 '조이스킨', 녹색 배 '그린시스', 황금색으로 외관이 아름다운 '황금배'와 '슈퍼골드', 제수용으로 크기와 맛이 탁월한 '만풍배', 9월 중순에 수확하는 이른 추석용 배 '신화', 장기저장 가능한 '만황' 품종 등을 볼 수 있다.
- 농촌진흥청에서는 '신고' 품종이 83%를 점유하고 있는 배 시장을 바꾸기 위해 8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수확이 가능한 우수한 우리품종 배를 개발했다.
- 개발한 품종들은 수확시기, 껍질색, 과실크기 등 최근 소비자가 요구하는 특성들을 반영하고 있으며, 당도와 과실육질 등의 특성은 기존 품종들에 비해 우수하다.
- 앞으로는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 병해충에 강한 품종, 껍질색이 붉은 품종, 항산화 물질 등 기능성이 높은 품종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은 국내 육성 배 품종 확대보급을 위해 2015년부터 전국 18시·군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우리 품종을 심은 신규 과원이 61.9ha 조성됐으며, 올해는 45ha를 조성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김명수 배연구소장은 "소비자, 생산자, 유통관계자, 연구·지도 전문가, 정책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인 이번 행사에 새로운 우리 배 품종 소개와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누면서 소통함으로써 배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가을철 소 호흡기 질병, 미리 대비하세요

- 환절기 질병 발생 늘어... 사양과 환경 관리 당부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환절기를 맞아 스트레스로 인한 소 호흡기 질병 발생에 대비해 세심한 사양과 환경관리를 당부했다.
 - 소는 온도차에 적응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는 면역력을 떨어뜨려 호흡기 질병을 비롯한 여러 질병의 감염률을 높인다. 실제 소의 질병은 환절기인 4~5월, 9~10월에 집중된다.
 - 소에서 많이 발생하는 호흡기 질병은 수송열, 소전염성비기관염(IBR) 등이며 밀집 사육이나 수송에 의한 스트레스로 주로 발생한다.
 - 호흡기 질병을 포함한 전염성 질병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외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소와 접촉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 외부에서 들인 가축은 별도의 사육장소를 만들어 최소 2주일은 건강상태를 관찰한 뒤 이상이 없을 때 합사하는 것이 좋다.
 -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축사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고, 축사관리자의 옷, 장화 등을 구분하며,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한다.
 - 질병 감염을 예방하고 감염되더라도 이겨낼 수 있도록 관련 백신을 철저히 접종하며, 면역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질 좋은 사료와 비타민, 미네랄 등을 추가로 급여한다.
- 특히 송아지는 초유를 충분히 섭취하도록 하고, 파스튜렐라균, 만헤미아균, 소 전염성비기관염, 파라인플루엔자 등의 백신을 접종해 면역력을 확보한다.

- 찬 공기나 실내 이산화탄소로 소의 비강, 기관지 점막이 자극을 받아 호흡기 질병이 발생하기도 한다.
- 축사에 바람막이를 설치해 찬 공기가 직접 가축에게 닿지 않도록 하고 낮 시간은 충분히 환기를 한다. 태풍예보가 있을 경우 지붕과 문 등을 보수해 비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관리한다.
- 생후 1개월 이내의 송아지는 환절기 질병으로 인한 폐사율이 최대 30%에 이를 수 있다. 충분한 초유섭취와 함께 보온을 위한 보온등, 보온조끼, 송아지 방을 마련한다.
- 농촌진흥청 류재규 가축질병방역팀장은 “이번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가축의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라며, “환절기 대비와 올바른 사양관리를 통해 질병발생을 줄이는 것이 농가의 생산성을 높이는 길이다”라고 당부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7. 정책 동향

◆ 2016년산 쌀 39만톤 매입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2016년산 공공비축미 36만톤(벼 40kg 기준, 1,250만 포대)과 해외공여용(APTERR) 쌀 3만톤(벼 40kg 기준, 104만 포대)을 농가로부터 9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입한다고 밝혔다.
- 공공비축미 중 농가편의를 위해 산물 형태(수확 후 바로 RPC 건조 저장시설에 보관)로 지난해보다 1만톤 많은 9만톤을 매입하고, 포대 단위(수확 후 건조포장)로는 27만톤을 매입할 계획이다.
 - 매입시기(9.23.~12.31.) : 산물벼(9.23.~11.14.), 포대벼(10.21.~12.31.)
- 또한, 공공비축과 별도로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운영을 위해 ‘16년산 쌀 3만톤(벼 40kg 기준, 104만 포대)을 매입한다.
 - ASEAN+3 Emergency Rice Reserve :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간에 쌀 비축량을 사전에 약정, 비축하고 비상시 공여하는 국제협약
-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을 반영하여 내년 1월중 확정되며, 1등급 벼 40kg 기준으로 45,000원을 우선 지급한다.

- 우선지급금은 농가의 수확기 자금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매입대금의 일부를 출하 현장에서 가지급하는 것으로서 산지쌀값이 확정된 후에 정산하게 된다.
- 올해 우선지급금 45,000원은 8월 평균 산지쌀값을 40kg 벼로 환산한 가격(48,280원)의 약 93% 수준에서 잠정 결정하였다.
- 다만, 농식품부는 10월부터 신곡가격이 조사되는 점을 감안하여, 실제 산지쌀값에 따라 11월 중 우선지급금을 재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 한편, 농식품부는 현재 '쌀 대책 비상 T/F'를 가동하여 쌀 수급 및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 중에 있으며,
- 향후 쌀 예상생산량 발표시기(10월 중순)와 연계하여 올해 쌀 생산량 등을 감안한 수확기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고로, 금년 벼 재배면적은 779천ha로 전년 대비 2.5% 감소하였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 수출 극대화를 위해 100일간 총력 체제 돌입

- 비상점검 체계 가동, 물류비 지원 확대, 소비품 조성 등 추진 -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9.22.(목)부터 금년도 농식품 수출 극대화를 위해 향후 100일간 총력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 8월말 기준 농식품 수출액은 41.6억불(전년 동기대비 4.6%↑)로, 현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수출액은 64.9억불에 머물 것으로 추정된다.
- 이는 금년 들어 미국, 아세안, GCC 등에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수출 시장인 일본으로의 수출이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제2의 수출 시장으로 급부상 하던 중국으로의 수출이 금년 들어 예기치 못한 부진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수출 극대화를 위해 일본, 중국으로의 수출 부진을 타개하고, 할랄시장 개척 등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펼쳐왔다.
- 「대중국 수출 17억불 달성 대책」(4월), 「대일본 수출 회복 대책」(7월)을 각각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K-Food fair 4회 (중국 2회, 할랄권 1, 베트남 1) 개최를 비롯, 동경 박람회, 상하이 박람회 등 주요 박람회에 37차례 참여하는 등 수출업체에게 해외 진출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 그러나, 최근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물류난이 가중, 향후 농식품 수출 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이같은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D-100일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8. 해외 농업정보

◆ 식량작물 생산성 향상 위해 아시아 14나라 모인다

- 농촌진흥청, 9월 21~23일 AFACI 식량작물 생산기술 관련 연례평가회 열어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캄보디아 씨엠립에서 ‘아시아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AFACI) 식량작물 생산기술 관련 연례평가회’를 개최했다.
- 이번 평가회는 아시아지역 이동성 병해충 관리와 무병 씨감자 생산 기술협력 등 2분야로 나뉜다.
- ‘아시아지역 이동성병해충 관리(이하 IPM)’ 사업은 이동성 병해충에 대한 아시아지역 나라 간 협력대응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합의(2009년)에 따라 2010년부터 시작됐으며, 우리나라 주도로 2019년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 IPM 사업을 통해 나라 간 이동성 병해충 발생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적기방제를 위한 현장적용 진단기술 보급, 병해충 이동 및 확산 예측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 이번 제6차 IPM 워크숍에는 13회원나라가 참여하며 기류를 타고 아시아 전역으로 이동해 벼농사에 피해를 끼치고 있는 벼멸구, 흰등멸구, 애멸구를 비롯해 이들에 의해 매개되는 바이러스병에 대한 나라별 연구 성과 및 추진 결과를 논의했다.
- 참여나라 : 13나라 (방글라데시·부탄·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몽골·미얀마·네팔·필리핀·스리랑카·태국·베트남·한국)

- 또한 올해 시작하는 3단계 사업을 통해 대상 작물을 벼에서 토마토·고추 등 채소작물로 확대하면서 외래 병해충 유입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 무병 씨감자 생산 기술협력 세미나는 한국의 양액재배를 이용한 씨감자 생산 방법, 무병 씨감자 조직배양기술, 수정재배기술, 질병 및 바이러스 등을 논의했다.
- 이번 사업으로 AFACI 14회원나라 간 기술공유를 통한 고품질 및 무병 씨감자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협력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참여나라 : 14나라 (방글라데시·부탄·캄보디아·인도네시아·키르기스(공), 라오스·몽골·미얀마·네팔·필리핀·스리랑카·태국·베트남·한국)
- 농촌진흥청 김도범 작물보호과장은 “앞으로도 아시아 농업기술 네트워크 사업을 강화해 아시아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일본 수입식품 검역검사 발표

- 수산물·냉동식품 위생관리 강화 및 지정 외 첨가물 요주의 -
- 대일 수출 농식품의 통관보류 및 검역 불합격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 대장균 세균 수 규격기준에 따른 위생검사를 좀 더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일본 후생노동성은 최근 지난 2015년 4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 까지의 수입 식품 검역 검사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일본 정부로부터 통관보류 및 검역 불합격 판정을 받은 우리 농식품은 총 39건으로 집계됐다.

- 이에 대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도쿄지사는 전체 수치상으로는 크게 염려할 상황은 아니지만, 전수검사를 많이 받고 있는 국가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13개 품목으로 중국(19개 품목)에 이어 두 번째로 많기 때문에 우리 수출업체들이 안전성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 aT 도쿄지사에 따르면 농산물의 경우, 정부의 잔류농약 기준치 개정 및 검역대책 강화로 위반율이 감소한 반면에, 굴과 활어, 대게 등 냉동수산가공품은 대장균 세균 수 등 미생물 검출 위반 건으로 전면 폐기 및 반송 조치되는 횟수가 크게 늘었다.
- 이에 aT 도쿄지사는 일본 정부가 대장균 모니터링 등 미생물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만큼, 대일 수출업체들이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해 작업장 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전했다.
- 현재 일본정부는 수입냉동식품을 무가열 섭취 냉동식품, 가열 후 섭취 가능한 열처리 냉동식품, 생식용 냉동식품, 기타 냉동식품 등 총 네 가지로 분류한 후, 검사를 실시 중에 있다. 네 품목 모두 대장균 검출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야 한다. 세균 수는 제품 특성에 따라 상이하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는 10만/g 이하지만 마지막 품목은 300만/g 이하이다.
- 이밖에 생식용 냉동식품은 차아산염소나트륨을 제외한 첨가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인공해수만 사용해야 하는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aT 도쿄지사는 밝혔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6. 09. 23.(시카고 선물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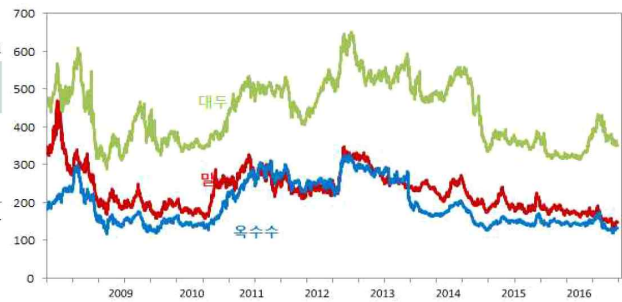
기술적 매도, 대두의 약세, 미국의 수확 진행 등으로 전일 대비 하락한 옥수수 가격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단위 : US\$/ton

구분	기준일 ('16.09.23)	전일대비	전월평균 ('16.8)	2015 평균
밀	148.66	▼0.2%	150	186
옥수수	132.44	▼0.1%	127	148
대두	350.90	▼2.2%	370	347

주)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적색연질밀: SRW), 옥수수, 대두의 근월물(밀, 옥수수 : 12월물, 대두 : 11월물) 청산가격임.



밀 선물시장 상황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밀 선물 가격은 옥수수와 대두의 약세에 동조하며 전일대비 0.2% 하락 마감하였음. 인도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인도는 밀 수입관세를 종전의 25%에서 10%로 감소하였음. 러시아 농업부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는 2016년 71백만 톤의 밀을 수확할 것으로 보임. 시카고 선물 거래소 적색 연질밀 가격은 부셸 당 0.75센트 하락한 \$4.06에 마감하였으며, 쉐프스 시티 상품 거래소 적색 경질밀 가격은 0.25센트 하락한 \$4.20에 마감하였음.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옥수수 선물 가격은 기술적 매도와 대두의 약세 그리고 미국의 수확이 점차 진행되며 전일 대비 0.1% 하락 마감하였음. 미국 중서부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며 수확을 지연시키긴 하였으나 곳곳에서는 수확이 진행되고 있음. 중국은 미국의 견고형주정박(DDGS)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예비관정을 내렸음. 시카고 선물 거래소 옥수수 선물 가격은 부셸 당 약 2센트 하락한 \$3.34에 마감하였음.

대두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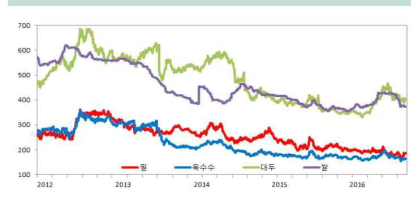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대두 선물 가격은 현물시장의 약세로 인해 전일 대비 2.2% 하락 마감하였음. 또한 미국의 기록적인 수확량이 가격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기록적인 강우로 인해 수확이 지연되고 있지만 곳곳에서는 수확이 계속되고 있음. 말레이시아 팜 오일 선물 또한 낮은 수요와 차익거래로 인해 하락하였음. 시카고 선물 거래소 대두 가격은 부셸 당 11센트 하락한 \$9.65에 마감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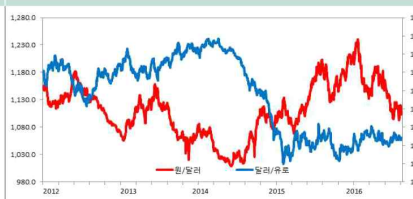
관련동향

- 대두 수출 프리미엄은 활발한 수요 가운데 보험세 유지.
- 23일 국제유가는 생산량 동결 합의 기대감 감소, 미 원유 시추기수 증가 등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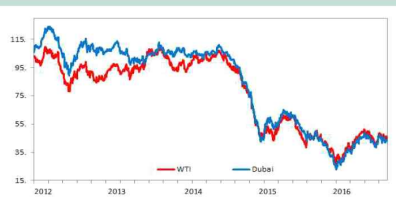
곡물 수출가격 (FOB)



환율



국제유가



구분	곡물수출가격 (FOB)		구분	국제유가	
	기준일	전일대비		기준일	전일대비
곡물수출가격 (FOB)	밀	186	환율	원/달러	1,103.1
	옥수수	162		달러/유로	1.1211
	대두	401	국제유가	WTI	44.48
	쌀	374		Dubai	43.39

주 1) 밀(US SRW Gulf), 옥수수(US 3YC Gulf), 대두(US Gulf), 쌀(Thailand 100% Grande B), WTI(11월물), Dubai(현물)

2) 기준일은 '16.09.22(수출가격), '16.09.23(환율), '16.09.23(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이사회,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9.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취업·창업 이제는 농업·농촌에서!

- 농촌진흥청, 곤충전문 컨설턴트 등 유망일자리 10선... 책자로 발간, 제공 -
- 농촌진흥청(정황근 청장)은 청·장년층이 농업·농촌의 유망일자리에 대해 매력을 느끼고 취업과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 유망일자리 취업 꿈 설계하기'를 발간했다.
- 책자에는 진로와 직업 선택의 절차와 방법, 농업·농촌 유망일자리 및 관련 자격, 국내외 새로운 직업 및 유망일자리 현황, 정부의 새로운 직업 육성계획,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 등 다양한 정보 등을 담고 있다.
- 특히, 곤충전문컨설턴트 등 농업·농촌 유망일자리 10선을 선별해 실제 현장에서 활동 중인 선배 직업인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생생한 정보를 소개했다.
- 유망일자리 10선 : 곤충전문컨설턴트, 초음파진단관리사, 농촌교육 농장플래너, 마을기업운영자, 식생활교육전문가, 스마트농업전문가, 협동조합플래너, 농가카페매니저, 재활승마치료사, 농산물유통전문가
- 곤충전문 컨설턴트로 전북 임실에서 'The Dream 곤충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박성환 대표는 곤충산업의 가능성을 보고 창업해 4년이 지난 지금은 시간적 여유와 함께 도시에서 일했을 때 받았던 연봉의 세배 정도 수입을 올리며 정신적, 경제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 초음파진단관리사는 한우의 출하시기와 등급 결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농가 소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직업이다. 연간 축산물 생산액이 18조 7,820억원(2014년) 수준이며, 해마다 늘고 있어 활동영역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진흥청은 이외에도 전문일자리 마련을 위해 새로운 국가기술자격을 개설하는 등 농업·농촌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 발굴에 힘쓰고 있으며, 청·장년층을 위한 취업·창업에 대한 사업지원, 교육훈련, 홍보 등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이 책자는 농업 관련 교육기관, 시·군농업기술센터, 고용센터 등에 배부하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누리집에서 e-Book형태로도 볼 수 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취업·창업 유망일자리 10선’은 다음 주부터 주간정보(104호)와 월간정보(10월호)에 게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 농촌교육농장 플래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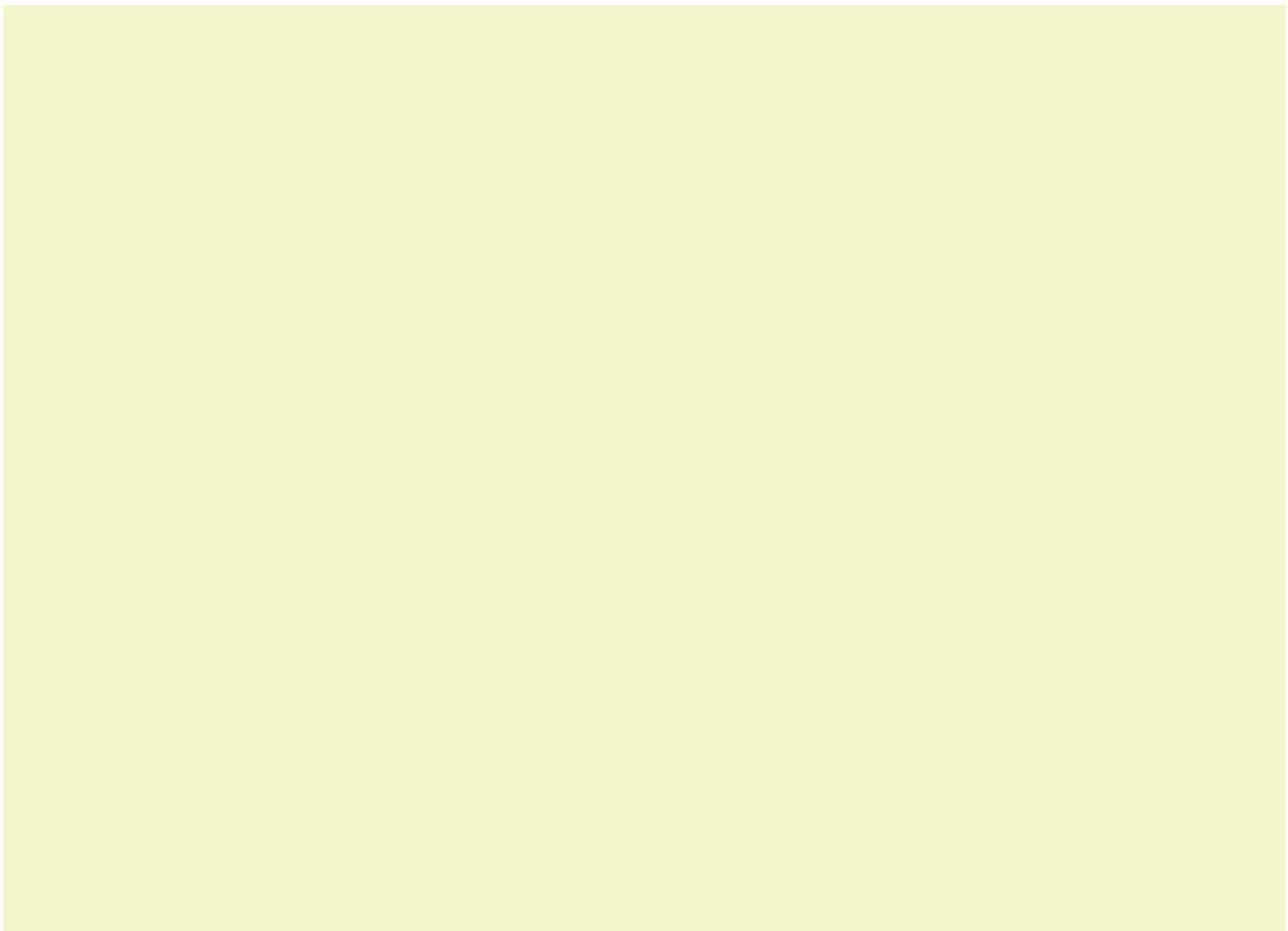
▲ 재활승마치료사

◆ 전문농업경영인 요람, 농업마이스터대 신입생 모집

- 친환경한우 등 16개 과정 11월 4일까지 원서 접수 -

- 전라남도는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의 요람인 전남농업마이스터대학에서 오는 11월 4일까지 제5기 16개 과정, 320명의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 원서는 모집기간 내에 각 해당 과정 캠퍼스별로 접수하며, 합격자는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11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 2017년 운영되는 제5기 과정은 참다래·매실·친환경 한우·흑염소·약용작물·복숭아·블루베리 등 16개 과정으로 각 20명을 선발한다.
- 해당 전공과정의 품목품종을 4년 이상 재배 사육한 경력을 포함해 1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농업인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고, 2년 교육과정으로 자기부담 교육비는 연 100만원 정도다.
- 농업마이스터대학은 해당 품목에 대한 최고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마이스터) 양성을 목표로 2009년부터 품목 중심의 2년제 32학점(480시간)의 현장중심 장기교육 과정으로 전남농업마이스터대학을 포함해 전국 9개 대학에서 운영 중이다.
- 전남농업마이스터대학은 순천대에 본부를 두고 순천대, 전남대, 목포대, 전남농업기술원, (사)한국온실작물연구소 5개 캠퍼스에서 교육을 추진, 현재까지 613명(1~3기)의 농업인이 교육을 이수했다.
- 이번 5기 신입생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남농업마이스터대학 누리집(<http://jn.agrimst.net>)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남농업마이스터대학(061-750-6415)으로 문의하면 된다.

* 출처 : 전라남도



주간
전남농업정보 103호
VOL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경영연구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58213
Tel. 061-330-2583 Fax. 061-335-4199